김재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엑스포 판세 여수 다소 우세"

"방심말고 외교역량 총집결 최선 다한다면 좋은 결과"

김재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12일 "현 상황으로는 우리나라가 주제와 경제력, 여러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 등의 면에서 다른 경쟁국보다 다소 앞서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2012년 세계박람회를 놓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모로코 탕헤르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와 비교해 여수의 현재 판세가 어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세계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주제를 '살아있는 바다와 숨쉬는 연안'으로 정해 시의적절하다는 평을 얻고 있고,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치른 경험도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이 유치 지지 결정을 오는 11월 27일 열릴 BIE총회 직전에야 확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선 여러가지 면에서 여수가 앞서 있다고 평가돼 방심하지 않고 외교역량을 총집결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일인 11월 27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국들의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모로코는 국왕의 강력한 리더십과 왕실외교를 바탕으로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최초 개최라는 명분을 내걸고 아프리카와 이슬람 국가에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바웬사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중부유럽이나 서부유럽, 동부유럽의 연결고리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엑스포 유치는 스포츠 행사처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 개인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BIE 회원국 정부가 투표권을 갖고 있어 교섭이나 예측이 어렵다"면서 "외교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27일 유치지역 결정방식과 관련, "세계박람회는 각국 BIE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BIE 회원국이 있는 파리에 모여 직접투표를 통해 첫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결정된다"면서 "지금 후보국이 세 나라이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얻기 어렵고, 1차에서 표를 많이 받은 두 나라가 결선투표에 가게 되는데 그때 과반수를 얻은 국가가 유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한나라당 광주·전남위원장 경선 가나

朴측 "李 독식불허 대거 출마"

당초 현 위원장들의 유임이 점쳐졌던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이 11일 회동을 갖고 각 지역의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들을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 대거 출마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경선 이후 당 화합이란 대의명분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이-박'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최경환, 유기준 의원 등 친박(친 박근혜) 의원 20여 명은 11일 국회 본회의 직후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시도당위원장 선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참석한 한 인사는 12일 "당 화합을 위해 치열한 경쟁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당 지도부가 이를 해결하기를 기대했지만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의 경우, 이명박 후보측이 자파 후보를 지원했다"면서 "임명직 당직자는 이 후보측 일색이고 박 전 대표측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도위원장 선거 출마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 의원도 "임명직도 독식, 선출직도 독식이면 당을 독식하겠다는 것 아니냐. 선출직마저 다 내놓으라면 (박 전 대표측에) 무장해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측은 부산 엄호성, 대구 박종근 또는 이해봉, 경북 이인기, 인천 이경재, 충남 이진구 의원과 대전 이재선, 충북 송광호, 광주 김정읍(동구), 전남 안희석(무안·신안) 당협위원장 등 친박 인사들이 각 지역 시도위원장 경선에 모두 출마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최근 임명직 당직인선과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의 당 조정력 실패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참석자들은 '경선 승복 및 정권교체 협력'이라는 박 전 대표의 뜻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박 전 대표와의 교감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여수 '고래 패밀리', 그후

장 필수
경제부 차장

증권사 실전투자대회를 휩쓸어 유명해진 일명 '여수 고래 패밀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본보(8면)에 처음 보도되면서 알려진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연락처를 묻는 독자들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 고래 패밀리는 전업 투자자인 박현상(34)씨를 중심으로 박씨의 처제·처남 등으로 구성된 가족의 별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CJ투자증권의 왕중왕 실전투자대회를 비롯해 3년동안 증권사의 8개 수익률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증권가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이렇다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하다. 전화를 걸어온 독자들은 대부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이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고래 패밀리를 만날수 있느냐" "취재를 했으니까 전화번호를 알 것 아니냐" 등 직접 만나 투자 노하우를 듣고 싶다는 것이다.

주식의 재야 고수들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극히 드물다. 광주에도 주식 직접투자로 1천만원을 7년만에 40억원으로 불린 40대 초반의 남자 등 고수들이 몇몇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점이다. 신원을 알더라도 취재가 힘든 이유다.

사실 고래 패밀리도 어렵게 취재를 할수 있었다. 광주시내 아파트에 자체 트레이딩 룸을 갖춰놓은 이들은 시내 PC방에서 만난다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했다. 더구나 취재 과정에서도 보도 내용이 수익률 대회나 투자기법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때문인지 박씨는 뼈아픈 자신의 과거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 등록금과 상가를 날린 경험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주식투자 기간중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 것은 겨우 2년반 정도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정작 주식 고수인 박씨가 주식투자를 생계수단으로 삼지 말것과 일반 투자자는 장기투자나 펀드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점차 간접투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내 주식형펀드 잔액은 2조1천631억원으로 6개월만에 3천444억원(18.9%)이나 늘었다.

박씨의 충고처럼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젠 직접보다는 간접투자에 나서기를 바란다. 설혹 고래 패밀리를 만나 '비법'을 전수받는다 해도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 자신만의 투자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고수를 만나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래 패밀리를 찾아 다니는 시간에 본업에 충실하고 전문가에 자금을 맡긴다면 '인생'과 '투자'에서 모두 성공하게 될 것이다.

/bungy@kwangju.co.kr

"盧대통령 너무 바빠 등잔밑 어두워"

이명박 후보 "민생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12일 "지금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며 "새 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 "민생"이라고 주저없이 밝히면서 "특히 내수진작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사방에 기초질서가 무너졌다"며 "선진국가가 되려면 조그만 것에도 법이 지켜져야 하는데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다"며 공공질서 확립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서는 "흥미 위주로 가선 안된다. 어떻든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며 "소위 권한이 남용됐느냐 하는 법적 차원에서 따질 것은 엄밀하게 따져야하지만 개인 사생활이 흥미 위주로 가면 안된다. 그래야 성숙한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노 대통령이 지금 남북정상회담하랴 야당 후보 고발하랴 너무 바쁜 것 같다"며 "권력말에 와서 레임덕이 오지 않겠나 하는데 지나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국정에 집중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전날 노 대통령이 이 후보 고소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범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5년 임기 중에 유사 발언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고, 비난하면서 맞상대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명예선대위원장이나 고문직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다. 그건 오히려 박 전 대표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범여권의 예상되는 검증 공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척 하는 정치공작적 검증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상적인 정책대결이나 국정운영 능력 대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전·충남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후보 선출 이후 23일만에 첫 지방 나들이에 나서는 이 후보는 이날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목원대에서 학생들과 '청년실업과 일자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日 자위대 함정 인천항 입항 12일 인천항에 도착한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 카시마함에서 승선 자위대원들이 하선하고 있다. 카시마함 등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 3척은 이날부터 4박5일간 인천에 머물면서 한국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친선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